

2012년 12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

일시 : 2012.12.26(수)

발언 주요 내용

▲ 방송 뉴스에서 분석 기사 비중 늘려야

- 뉴스 중 스포츠 비중을 늘려야. 뉴스에서 규칙을 철저히 이해하고 분석해 제공해야. 기자들이 냉정한 분석 노력 필요(최종준 위원)

▲ 정치평론가 지나친 겹치기 출연은 지양해야

- 대선 정국에서 뉴스Y의 고정 프로그램 진행자인 고성국, 신울 씨의 타 방송 겹치기 출연은 바람직하지 않아(박영상 위원장, 김정연 위원, 한박무 위원)
- 19일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 동향과 가능성 예측을 하며 전화연결, 현장연결, 전문가 인터뷰 등으로 실시간 최신 정보를 입수하는데 뉴스Y가 역할을 했다고 생각
- 하지만 시사평론가들의 논조가 한 쪽으로 치우친 듯 했고 타 방송 중복 출연으로 비슷한 질문과 답변 반복. 뉴스Y만의 차별성이 없어 사전 조율 필요(차경애 위원)
- 평론가 풀을 두고 출연시키는 것은 어떤지(박영상 위원장)

▲ 제18대 대선 투,개표 방송 관련

- 19일 대선 방송을 48시간 생방송으로 진행하여 투,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자세하게 알 수 있었고 가상 스튜디오와 다양한 컴퓨터 그래픽 등 기술적 측면도 좋아. 그러나 다소 지루한 감이 있어(차경애 위원)

▲ '굿뉴스'로 첫 뉴스와 마지막 뉴스를 커버하는 방안 제안

- 뉴스Y는 개국 1년치고는 성과가 많아. 앞으로 질적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목표 타겟팅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. 예를 들어 8시 첫방 첫 뉴스를 굿뉴스로 시작하고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것이 어떤지. 굿뉴스라는 목표를 잡고 실행시킨다는 차별화가 될 수 있어(홍승용 위원)
- 굿뉴스를 '작가들이 쓰는 뉴스'라는 새로운 장르로 만드는 것도 좋아. 'end with the smile'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뉴스로 끝내는 방법도 고려해야. 첫뉴스와 마지막 뉴스를 좋은 뉴스로 제공하는 것도 생각 필요(박영상 위원장)

▲ 국제 기사 취재에서 현지인 취재 동원 늘려야

- 현지인 스트링거를 고용하는 방안은 검토해 봤는지(박영상 위원장, 김정연 위원)

▲ 대담, 자막 등 화면 구도 신경써야

- 신율의 정정당당 대담 방송시 신율을 화면 위에, 대담자를 밑에 배치하는 구도로 보여주는데 시청자들은 대담 방송이 아닌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(차경애 위원)
- 자료화면으로 전환할 때 어색한 면이 있어. 기술적인 조율 필요(차경애 위원)

▲ 긍정적인 평가

- '위안부 소녀비' 건립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을 돌아보는 내용의 12월 13일 보도는 자칫 묻힐 수 있는 내용을 다룬 의미 있는 보도였음(차경애 위원)

▲ 기타

- 정치권 대선 뉴스로 다른 경제, 사회, 국제, 문화 분야 등의 비중이 적어. 뉴스 분야의 균형이 필요(차경애 위원)